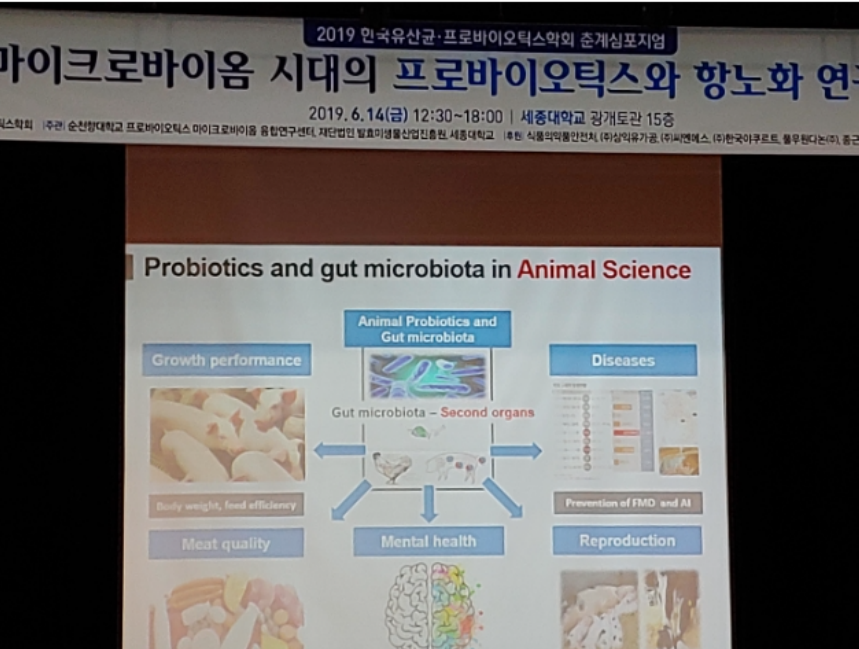


한국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학회, '마이크로바이옴 시대의 프로바이오틱스와 항노화 연구동향' 주제 심포지엄 개최

김영훈 서울대 교수, '노화관련 인지기능에서 프로바이오틱스와 장내미생물' 연구 동향 발표

송찬영 3sanun@hakooki.com



[데일리한국 송찬영 교육전문기자] 한국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학회는 순천향대 프로바이오틱스 마이크로바이옴 융합연구센터 등과 공동으로 지난 14일 세종대에서 춘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학술대회는 '마이크로바이옴 시대의 프로바이오틱스와 항노화 연구동향' 주제 아래 세 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첫째 세션은 송호연 순천향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영훈 서울대 교수의 '노화관련 인지기능에서 프로바이오틱스와 장내미생물', 박호영 한국식품연구원 박사의 '프로바이오틱스의 새로운 이용', 이승훈 SK바이오랜드 바이어연구소장의 '피부 항노화를 위한 유산균 기반 더모바이오틱스 개발' 발표가 있었다.

둘째 세션은 최인석 종근당바이오 연구소장의 '산업화를 위한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한경식 삼육대 교수의 '임신기와 비유기 동안 모체의 영양상태가 자손 쥐의 장내 미생물 군총에 미치는 영향' 강연이 진행됐다.

셋째 세션은 심순미 세종대 교수 진행으로 '실험계획법을 활용한 미생물생산 배지 최적화(박재해 이레테크 소장) 관련 워크숍이 이어졌다.

이날 심포지엄 후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삼익유가공, 씨엔에스, 한국아쿠르트, 풀무원다는, 종근당건강, 남양유업, 매일유업, 한국쓰리엠주식회사가 맡았다.